

아산뉴스

2004년 12월 27일 (월요일) 제132호

개척자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하자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고장, 서로 믿고 함께하는 도시



아산 맑은 쌀

발행인: 아산시청 강희복/편집: 공보체육과/우편번호: 336-701/주소: 충남 아산시 온천동 1626/전화: (041) 540-2221/팩스: (041) 540-2162/http://www.asan.chungnam.kr

백년대계 교육, 아산시가 주도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한다. 국가의 미래가 청소년들의 교육성과에 따라 발전과 퇴보를 달리 할 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교육이 어떻게 국가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주춧돌이 되는 만큼 청소년들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학습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이에 아산시는 적극적인 교육지원과 장학사업들을 통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리로서 교육도시로 발돋움 했음을 2005년도 고등학교 입시지원 현황에서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2005년도 고입 지원현황 도표 참고)

또한 2005년도 고입지원 현황은 그동안 아산시가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우수학생들이 외부 학교진학을 선호했고 이로 인하여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역여론과 시민들이 따가운 눈초를 일시에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게 됐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아산시와 교육청, 각급학교, 시민들이 함께 교육도시 육성에 온신의 노력을 기울인 밤의 결실로 보여져 더 큰 의미를 갖게 한다. 시는 여름방학 기간중 영어캠프 운영, 원어민교사 교육, 아산시내교향 장학금지급, 각급학교 과학기자재 지원 등 충남도내에서 최고의 교육예산을 지원했다.

또한 아산시 교육청에서는 2008년도(현재의 중3학생 적용)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교육제도에 대하여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설명회를 통해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 진학의 유리한 점을 상세하고 적극적인 홍보하여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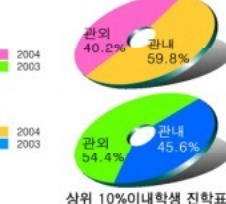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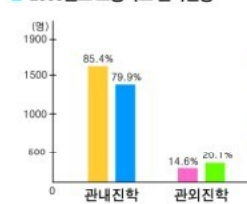
이와함께 각학교의 진로지도 교사들도 관내 고등학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년도 아산시지역 고등학교의 대인 장학생을 비교 분석한 자료로 설득력 있는 홍보와 아산시로의 진학을

적극 권유하여 학부모들의 대대적인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같은 성과에 대하여 아산고등학교장은 "아산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면서

교육관계자들의 열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희망찬 미래의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도 고등학교 진학현황



2008년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중 확대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 '성적부록'을 '성적'과 함께 반영

즐겁게, 신나게, 정성을 다해

아산시 사회교육대학 할아버지·할머니 졸업작품전 개최



▲ 할아버지, 할머니! 멋진술씨 구경 왔어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시청현관에는 풍성한 볼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길을 끌며 발걸음을 늦추게 했다.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한 사회교육대학 회원들이 그동안 즐겁고 신나게 배워온 솜씨를 맘껏 뽐낼 수 있는 졸업작품전시회가 열려 종이접기, 한지공예, 서예작품 등 정성을 담은 다양한 예술품들을 전시 하므로써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또한 1년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전시회를 통해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품전시회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는데 큰 의미를 찾게 했다.

전시회와 함께 17일에는 시청 대

강당에서 500여 회원들이 참여해 1년동안 수고한 안산문화학생회장, 장준형, 조신자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사물놀이, 민요교실, 댄스스포츠 등의 축하 공연도 가졌다.

도고면에서 오셨다는 이모씨는 "큰오빠의 서예작품이 전시됐다는 말에 각각 흠뻑히 살고 있는 삼남매가 오랜만에 모여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오빠한테 이런 애능적 소질을 발견하게 되어 기쁘고 우리 아이를 한테도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해 가족간의 돈독한 정을 과시 했다.

한편 시는 이런 행사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여 지역 어르신에게는 삶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고, 가정과 시민 더 나아가 사회에는 어르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나감으로써 지역어르신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힘은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져고 용기는 가슴속의 외지에서 일어난다. <물박>

送年辭



존경하는 20만 아산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였던 한 해에도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조용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희망의 도시 아산건설』을 위해 함께 매진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시의회의 원님, 각급기관단체장과 임직원여러분, 그리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숨기쁘게 달려온 우리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몇시간 있으면 갑신년 한해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올유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를 여는 이때쯤이면 우리 모두는 시간이 주는 연속함 앞에 경건하고 숙연해지곤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만족감 보다는 못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반성과 아쉬움이 많은 해였지만 민선3기 지난 2년 반 동안은 이원된 조직 기반을 바로잡아 외형이 넘치는 중부권 최고의 중추도시 아산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책임행정 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숨기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물어봐 보면 올 한해는 그 어느해 보다도 새로운 의지와 다짐속에 뜨거운 열

망을 갖고 출발한 해였습니다.

20만시민의 기대를 받들어 시장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반면 여러가지 난관속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도 있었던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습니다.

먼저 급변된 성과 중 가장 큰 보람은 전 공직자와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인구 20만명 달성에 성공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농림부와 생산자단체가 주최한 2004년도 전국 으뜸쌀 품평회에서 우리 아산쌀이 2년 연속 금상에 이어 올해는 담당인 대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농림부와 소비자단체가 공동 주관한 품평회에서도 『러브미』로 선정됨으로써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모두 인정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쌀로 지리 매김하여 아산시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습니다.

이와함께 우리 아산시는 금년에 경제위기 극복의 선봉지역으로서 인구중간 분야에 거의 완료되었으며, 문화관광보급적화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환경T/C지방산업단지에 세계최대 회합단의 삼성TFT-LCD라인 설비라인이 시험가동에 들어가는등 명실공히 전자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시설로 우리시 통사를 가로지르는 통사로 속도로와, 우리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남북고속화도로건설, 아산~천안간 국도 2호선 회포정 사업, 지방도 028호 음봉구간, 624호 당정구간의 4차선 확포장사업 등 지역발전 인프라 SOC사업을 우리시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주민숙원사업이었던 군부대 이전 사업이 올12월에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한층 더 쾌적한 환경 및 효율적인 도시 공간을 제공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제56회 충남도민제전 종합 2위, 국로 공익화사업 조성부문 최 우수기관 등 시장 각 분야에서 전국단위 수상을 다수 석권하여 아산인의 자긍심을 한층 높인 한해였습니다.

행정 내적으로는 어려운 지역 환경속에서도 공무원 조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대적 흐름에 걸 맞는 혁신적인 행정문화 창조와 각종 중앙단위 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했던 행정서비스현장 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아산발전을 위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등 그 성과가 가시화 되어가고 있어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 매우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엄청난 환경변화의 어려움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산시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명감을 불태운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시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희망, 꿈, 번영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일은 없다고 합니다. 남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지방자치단체만이 미래경쟁에서 발전하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사고와 의식만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풀어 갈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한 이 모든책임은 우리 아산시민 모두가 짊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저 역시 시민여러분과 또 우리 아산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20만 아산시민 여러분 또 다시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2005년도가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한해이지만, 우리 모두 하던 편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쟁력있는 『아산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해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이 지체되는 것을 법령의 규제 타오르며 물리치 말고 민·관이 하나 되어 일을 극복해내는 총체적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과다한 목표에 행정력의 낭비 없이 『실현 가능하고 실익 있는 청사진』을 마련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20만 아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기산만 있다면 두려워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21C 국가발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아산의 가능성과 희망 또한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시민여러분이 하나 되어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다면 『21세기 희망의 땅, 새로운 아산』로 발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 한해 성심껏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유년 새해에도 20만 시민 모두가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아산시장 강희 복



칼럼

교육은 지역 사회의 발전 대계

서울 강남의 집값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재미있는 것은 그 높은 집값이 학교와 학원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집값 상승의 요인이었다니 아이말로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세상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식들의 공부에 대해 별관심이 없는 나라도 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학비를 주어야하기 때문에 자녀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직하기를 바라며, 이에 항거 하듯이 자립으로라도 대학을 갈려는 자녀들이 있는 나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유럽의 나라들이 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새벽부터 새벽까지 학교와 학원을 다니다가 잠이 들지 못하는 루틴에 매여있는 것은 진정한 참교육의 땅으로, 기형적 교육에서 해방된 나라로 여겨졌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지식산업사회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 지식은 바로 힘이며 국제인대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 역량을 형성하는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를 경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걱정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낮은 교육열을 개선하고 국가의 지식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온갖 교육 진흥책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온갖 장학금과 학비 면제, 그리고 국비 유학은 물론 교수예약제(교수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공부함) 등등 우리가 부러워하는 교육 진흥책 뒤에 가려진 실상은 바로 그 나라의 낮은 교육열이라 하겠다.

개인에게는 힘든 경쟁이지만 그 결과 총체적으로 형성되는 국가의 지식 역량은 곧 나라의 경쟁력 상승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들을 보자. 바로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가 치열한 입시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나라들에는 제이있지도 "입시 지옥"이라는 공통어가 통한다. 바로 개인 간의 치열한 지식 경쟁이 20세기와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으로 승화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림 미학은 입시 시작 앞니도 국력이 세계에서 최고 인데 이는 어찌 설명할 것인가 할 것이다. 미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인재를 스카웃하는 최대의 외국 지식인 풀 사회라 보면 된다. 즉 유출된 두뇌가 머무는 곳, 외국에서 힘들어 공부시켜 높은 인재를 가로채어 자국의 지식 역량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란 사회이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 바로 이것이 미국의 장래에 대한 미국 지도자들의 큰 걱정거리라 하겠다.

이처럼 한나라의 교육열은 그 나라의 국력을 좌우

하게 되며 지식기반사회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하였다. 젊은이들의 학업열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보면 그 국가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가적 차원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서울의 강남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다는 것을 제외하고도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가졌으며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러면 강남이 예전부터 그러했는가하면 그렇지 않다. 바로 교육 환경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교육 환경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겠으며, 역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제반 교육 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투지와 지원이아말로 그 지역 사회 발전의 전인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산시에서는 지역 장학 기금을 육성하여 우수한 인재를 기르는 것은 물론 교육 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으로 지역 발전의 기초를 튼실히 닦아주고 있어 아산의 내일을 밝게 해주고 있다.

送年辭



존경하는 20만 아산 시민 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 한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엔 온갖 정성과 열정을 모아주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바 소임을 훌륭히 다해 오신 일선여공직자 여러분과 묵은일에도 솔선수범하여 시민을 위해 헌신하여 오신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

해서도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쌀개방 파동, 이라크파병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사건과 현재의 신행정수도 위한 관철을 꾀한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전 국민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3월의 축설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와 운전동의 가스폭발, 고속철도 천안아산역(문양온천)사내의 택시영업권 문제와 신도시 편입지역과 탕정 삼성산업단지내 주민의 토지보상문제 등 각종 집단민원 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지혜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였으며,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산 성정이순신정

와 질풍문화제등 많은 예술·문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낸 자부심이 함께 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산시의회 4대 후반기 임구성 후 원만한 운영함으로써 품위있는 민주주의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음은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 지역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찬 아산시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와 제도적 장벽 등으로 시민의 다양한 바람과 힘겨운 고사를 충분히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20만 아산시민여러분!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다양하게 요구되는 주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진정한 아산인의 자질을 보여 줄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올 한해동안 보내주시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한 유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12. 31.
아산시의회의장 이한욱

아산시의회 제92회제2차정례회 개최

2005년도 예산안 의결 및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등 일정마침

아산시 의회(의장 이한욱)는 지난 달 25일부터 12월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92회 제2차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8일 집행부가 제출한 5001여억원 규모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한해동안 집행부의 시장운영을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옳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널리 전파 하도록 하여 시민만족 행정서비스에 기여토록 하라는 주문과 함께 36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 집행부에 요구 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 하면서 시민의 혈세로 시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짐을 짊어지고 세세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맞춰보면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5,14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또한 시장질문과 답변에서는 시장의 전반에 걸쳐 잘못된 점들을 따져 묻고 앞으로 집행부가 개선해 나간다는 답변도 얻어 내는등 연구하며 발로 뛰는 열정 어린 시의원들의 노력을 보여주면서 한층 성숙한 삼천지반의회의 모습으로 시민 곁에 다가갔다.

이와함께 아산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건도 심의 의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다.

년말 사회복지시설 위문 전개



아산시의회(의장 이한욱)는 지난 12월 21일(화)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경찰서 등을 방문 격려하였고, 금년도 어려운 이웃돕기는 그동안 의례적으로 실시하던 위문관행을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본정의 손길이 될

3,600천원에 상당하는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또한 정례회가 끝난후 성금을 모금하여 모아진 70여만원의 총합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일조하였다.

요한 시설들을 의회 의원 정원이 일일이 찾아가 격려하고 위문하였다. 위문내용을 보면 열린면 성모복지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6개소, 군부대장병, 경찰서 전·의경 등에 위문품으로는 양말, 과일, 유류, 라면, 과자등 총

조례안 8건

- 아산시학교급식에관한조례안
-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아산시농어업발전기금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영인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아산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 아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아산시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아산시주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건

- 2005년도 아산시 채무상환 기금운용 계획안
- 2005년도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5년도 아산시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
- 2005년도 아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
-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환경행정서비스 현장

1.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지도점검 및 철저한 단속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생태계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단속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2.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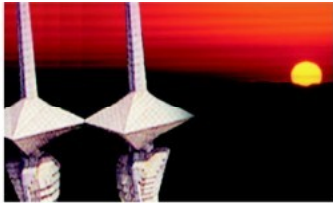
- 고개에서 적정하게 배출한 생활쓰

레기는 24시간 이내에 수거하여 불쾌감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신 재활용품은 매주 1회(수요일) 일제히 수거하겠습니다.
○ 학교, 공동주택 등에서 별도로 선별하신 재활용품은 연락을 주시면 3일 이내에 수거하겠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시에는 2시간 이내에 단속반이 현장 조사하고 확인이 완료된 쓰레기는 24시간 이내에 수거하겠습니다.

희망이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사람은 비록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행복해 진다고 생각한다. <보브>

을유년 새해 온누리에 스마트 도시의 서광이

영인산에서 해맞이 축제, 아산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 기원



2005년 원단에 아산시는 아름다운 아산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해맞이 축제를 영인산에서 시민과 함께 개최한다.

신정행사와 분향사로 개최될 해맞이 행사는 신새벽 6시에 시청에서 모여 버스를 이용, 영인산으로 이동한 후 풍물패 공연, 트럼펫 연주, 식전행사를 열고 새해 아산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희망의 메시지 낭독, 시루떡가름으로 개최될 있다.

또한 을유년 첫날 모든 시민에게 가슴박차 큰희망을 마음속에 식을 수 있도록 힘차게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타북이 이어지며 참가한 시민 모두가 목청껏 대한민국 만세! 아산시 만세! 아산시민 만세!

의 만세3창을 우렁차게 외친다.

한편 영인산골에 만세3창의 함성이 울려 퍼질 시간에 남산과 광덕산에서도 시민들의 해맞이 행사가 개최되어 20여만 시민의 대화합과 개척자 정신으로 국제적 스마트 도시 아산을 건설을 위한 소망,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게 된다.

이런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고3 청소년을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아산시는 수능이후 해이해지기 쉬운 고3 청소년들에게 건장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립형양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벌써 3회째 개최되는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순천향 대학교수의 교양강좌(지혜로운 미래 설계)와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무용 공연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여학생과 남학생의 일정을 달리하여 첫해남 여학생들을 위한 메이크업강좌, 둘째날 남학생들을 위한 "정혼과 함께하는 연극놀이" 등을 공연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프로그램들로 구성 운영하여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메이크업강좌에 참여한 이모 학생은 "늘 호기심과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막상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즐겁고 신나게 교육을 받았다고" 교육소감을 밝혔다.



▲ 저! 이제부터 이미지 변신 빠져봅시다!

한편 시관계자는 "새내기 사회인의 미래에 대한 알찬 설계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의 계기를 마련하여 발전을 예방하고 건전한 심신수련과 문화와 여가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청소년들로 성장해 나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 아산이 그 발걸음 가볍게 한다

아산시가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중 버지와 오지지역을 운행하여 적자에 허덕이는 버스노선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그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새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2004년도 아산시의 대중교통수단인 노선시내 버스가 운양~유구간 노선외에 57개의 비수익노선과 오목~죽산간의 15개 복지노선을 운행하면서 총 2,308백만원이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로 보존키로 한 것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 예산이 통결되었던 점과 자가용 이용자의 증가로 승객감소등의 요인이 작용 하면서 버스운송업체들의 적자누적 가중이 예상되면서 체불인금이나 운행 중단등이 우려를 낳게 하는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학생의 할인요금에 대해 50%를 국고보조, 나머지 50%를 시비로 부담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국고보조본은 국기이항시업비에 포함되어 반영 지원을 받게 되므로 학생의 할인요금지원부분의 예산은 시비를 사용토록 해야 된다.

한편 노선버스서비스는 도로망, 철도망과 함께 누구나 이용하는 사회기반시설로 공익사업과 공공의 편익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제지원, 보조금등 직간접적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운행여건 개선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따라 아산시는 복지 및 오지 노선버스 운행으로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노선버스 운행자에게 충분한 지원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재원의 배분 배려는 차원에서 공익을 실현에 나갈 방침이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에 전시민 참여를



▲ 고사리 손에 사랑이 하나 가득

아산시가 충청남도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각계각층의 따뜻한 손길로 만들어진 성금과 물품들이 담지하고 있어 추운 겨울 날씨를 녹이는 훈풍으로 감싸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편인하여 월초 150백만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모금운동을 시작한 아산시는 16일 집중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이미 목표액을

초과 달성 하므로써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아산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

2005년도 1월 31일까지 계속될 이번 모금운동에서 모아진 성금은 자선봉사단체등의 프로그램지원과 저소득층지원, 화재등 노후이 필요인 이웃, 그리고 어려운 학생지원등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시관계자는 상부상조의 정신은 우리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미풍양속으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로 더불어 함께 하는 건전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직도 못다한 사랑을 위하여

사람의 계좌번호입니다.

농협 : 400 01 010002	수협 : 301 01 118904
- 우체국 : 310037-01-004363	- 조흥은행 : 601-01-186937
- 하나은행 : 621-740230-00105	- 우리은행 : 559-070706-01-001
- 국민은행 : 451-01-1003-737	- 중소기업은행 : 413-000827-04-014
- 제일은행 : 675-20-524825	(예금주: 충청남도공동모금회)

음식물류폐기물 이렇게 배출해야 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금지, 시민의 협조가 절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접적인 매립이 금지된다. 이는 수분이 함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 하였을 경우 걱정되는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법규가적으로 시행되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분리배출을 스스로 실천하는 시민들의 협조가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

또한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되면 이를 분리하여 매립할 수 없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철저하게 분류하여 지정된 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일반주택 및 음식점에서는 읍면동에서 공급한 음식물류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전용봉투(노란색)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렇게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은 가나 폐지의 동물사육자들이

퇴비와 및 동물사료로 재생산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 되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음식물류를 처리하는 비용은 일반주택의 경우 800원/월, 음식점(125

원/월)은 세외)는 2,900원/월을 부담해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이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가 용기를 구입하여 스티커 부착후 배출이 가능하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는 이렇게 한다.



새해영농교육 FTA 극복할 길이 보인다

새로운정보와 선진농업기술 습득의 기회, 농업경쟁력 높인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구)에서는 1월 5일부터 24일까지 19회에 걸쳐 농업인 4,500여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 제공과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습득 강화 등 2005년 새해영농준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농정시책과 시장 교육으로 현안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준비된 이번 교육은 영농기술반과 여성반을 운영하며 세부적으로는 식량작물분야, 아산시 중점 특화작물분야, 여성반등 품목별 전문가 함양과 소비자 생산자의 합리적인 농산물생산과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향상된 교육내용 제공과 농업현장에서 느끼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외래강사 및 우수사례농업인 초청 사례발표와 함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상자료를 활용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영농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은 새로운 농업 정보와 우수한 사례를 접하게 되므로 선진적 농업마인드를 형성하여 농산물 세계시장 개방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농설계교육 담당자는 한해 농사의 시작인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것을 적극 권장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인건비농산물 생산기술이 중점 교육되고 특히 친환경농업과 가공, 유통과 정 등에 관한 교육하므로 어느 때 보다 유용하고 실용적인 교육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산불! 한순간의 부주의, 대대손손 후회

전국인이 애써가꾼 산림도 산불이내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원상 복구하는데는 40만에서 100만이라는 긴 세월과 막대한 노력 및 비용투자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나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대대손손 피해와 후회를 가져옵니다. 겨울철 산불예방에 모든 시민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 산불예방관련 시민협조 사항

- 산행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통제지역 무단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 입산시에는 성냥, 담배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림과 연결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때에는 해당관서에서 사전 허가를 받습니다
- 열차나 자동차이용시 차창 밖으로 담뱃불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119 또는 행정관서, 산림 관서에 즉시 신고합니다.

건축물은 도시를 가꾸는 예술품

모종동 선거관리위원회 제4회 아산시 건축상 대상수상

아산시는 도시경관 개선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매년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 해오고 있어 올해 제4회 아산시 건축상에는 총37건이 응모하여 열띤 가락을 벌인 결과 (주)에게에서 설계한 모종동 선거관리위원회 건축물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금상에는 (주)라일이 설계한 단독주택(배방면소재), 은상 (주)에게가 설계한 교육연구시설(온천동소재) 동상 (주)에게가 설계한 용화동 소재 단독주택이 선정됐다.

아산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는 아산시 경관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아산시에 발주하는 건축공사 수의계약 사항 우선 협상권이 부여되어 이산시가 주관하는 건축공사와 관련한 우선 상담권도 부여 된다.

한편 아산시는 건축물이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고 구성하는 예술작품임으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4년째 아산시 건축상을 선정 시상해 오고 있으며 시가 추구하는 스마트도시 건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함께 발전을

지난 15일(수) 송악면 외암리에서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농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도시와 농촌의 공동 노력에 대해 YMCA 전국연맹이 주관하고 농림부가 후원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꿈꾸며 진행해 왔던 지난 1년간의 도농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농촌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도 모색하는 토론회도 가졌다.

송악 / 이상숙 주부명예기자

신화보건진료소 겨울철 건강교실 운영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간기를 이용해 삶의 질적향상과 질병 예방 및 운동의 생활화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화보건진료소가 겨울철 건강교실을 운영 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될 건강교실은 상내2구 교회교 육관을 활용하여 발맞추어 교육과 실습,

신나는 건강체조 및 달팽이운동으로 구성되었고 강사는 신화보건진료소장 유기 연이 맡았다.

또한 신화보건진료소의 마을건강원도 올해 1월부터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 발 맞사지 해드리기, 신나는 건강체조 함께 하기, 간식제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건 인차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영인 / 송경옥 주부명예기자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부터 지난 22일 '2004 대한민국청소년 육성대상' 지도활동 부문 대상을 받게 된 아산시가출원소년원터 원장 이동순

온양4동 / 명경옥 주부명예기자

둔포로타리 지역에 부는 겨울바람을 훈풍으로



아산둔포로타리클럽(국제로타리 3620 지구 회장서중석)에서는 지난 22일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 36가구 불우 이웃과 일선에서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고생하는 파출소, 소방대, 방범대, 중대본부들 찾아 연말연시를 훈풍하게 보낼수 있도록 6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쌀, 라면, 만두를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둔포로타리회원 전원이 참석해서 가가호호를 방문 정성을 담은 선물을 전달 하므로써 추위와 생활고로 힘들어 하는 이웃들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며 더불어 사는 훈풍 한 둔포지역 만들기에 기여했다.

한편 회원 김도씨는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 까지 지역과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계속 해 나가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둔포 / 서정애 주부명예기자

2004감사, 그리고 희망 페스티벌 · 장애우에게 희망을

지난 12월9일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서는 장애우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희생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고생해 온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직원들의 땀스공헌, 직업재활팀의 수화공연, 자원봉사단체(아산 동화 읽는 어른모임)가 상영한 그림책 슬라이드 '아름다운'이 행사의 꽃을 피웠다.

또한 전국단위 농구대회에서 우승을 이끌어 아산의 파위를 보여줬던 웰스와 워닝구단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중창을 연주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감동전 관장은 "여기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분의 관심과 격려가 장애우의 꿈과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온양5동 / 황유순 주부명예기자

견·학·문 / 중1 김은지

성균관 한자학원에서 '12월 18일 유적지 탐사를 간다'고 하였다. 12월이면 겨울이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것이 추위다. 이제 추위가 싫다 못해 질려버린 나에게 건학이러니! 한 중학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추위에 더럽혀진 시간도 미워할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영인면 아산리1구에 있는 '여민루'라는 예전의 문(?)에 갔다. 아산리 지금은 조그마한 면 소재지지만 조선시대에는 아산현이라고 하는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여민루(虞民樓)를 품어지하며 '백성들을 생각하는樓'라는 큰 뜻을 가지고 있다. '여민루'는 현의 첫째 문이다. '여민루'에서 가까운곳에는 지금의 세금을 걷는 세무서 자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죄인들의 감옥, 취조실, 기생들의 거처,무기창고 등 재밌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비록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민루'는 몇십년 전 까지만 해도 여민루에 올라갈수 있는 사다리라고 한다.

하지만 동네아이들의 장난으로 유물이 파손 될까봐 사다리를 없앴다고 했다. 나는 너무 걱정되었다. 우리나라 유물은 거의 돌 보다 나무로 많이 되어있어서 훼손되기 쉽다. 그래서 남의 나라 침략을 받으면 쉽게 없어지는게 바로 유물·유적이다. '그런데 아무 방치도 없이 예들의 놀이터가 되다니...'

그래서 나는 조금이나마 방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설치를 해놓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생각을 접고 이제 '김육균 선생 묘를 향해 가고 있었다. 김육균선생님은 신파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개혁정책을 펴려고 거사를 일으켜 성공했지만 그 일이 삼일 만에 끝나 삼일천하(三日天下)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그일로 반역자란 죄명이 씌워져 선생은 일찍이로 망명을 했고 일본에서 숨겨 살해당했다가 우리나라에서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 되었다. 그 시신을 우리나라로 옮겨 능지처참을 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머리를 창에 꽂아 자자거리에 걸어놓았다고

한다. 이것을 '효시'라고 하는데 반역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일로 김육균 선생의 시체는 모르는 일이 되었다. 그럼 이 묘는 무엇인가? 이 묘는 선생이 유물인 상투어, 담배갑에서 묻힌 허브(虎草)이다.

하지만 다시 신파가 세력을 잡은 후에는 '공신'으로 추대되어 나라에서 제사를 올리고 벼슬까지 내렸다고 한다.

김육균 선생의 언술하를 듣고 나니 그 묘가 왜지 처럼(?)해 보였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개혁을 위해 힘쓰신 분인데..... 능지처참이란 그런 변을 당하셨다니, 너무 황당했다. 다음 부터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육균 선생의 여울함을 가슴에 담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니 가뭇길에 떨어지지 않았다. 조금더 걸어 올라가면 향교다. 향교에 들어가니 외삼문과 명륜당(明倫堂)이 보였다. 향교는 지금의 국립중·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중요한 곳이었다.

여기에서는 공자님의 유교사상을 받들어 공부하는 곳이었는데 주요 과목은 산수, 음악, 서도, 예법, 말타기 활쏘기를 집중적으로 배웠다고 한다. 명륜당은 교실이었는데 이곳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들어가니 매우 어둡고 또 겨울이라 아주 추웠다. 문이 한지 한장으로 되어있으니 당연했다. 그당시에는 오리털잠바 같은 것이 없어서 더 추위를 많이 느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이 우리나라의 위인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 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공부해서 위인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외삼문 앞에는 동계(東階)와 서계(西階)가 있었는데 옛날의 반상(鄕路)제도 때문에 양반과 서민이 같이 숙식 할 수 없었다 한다. 그러기에 동계는 양반의 자제들이 숙식하고 서계는 서민들의 자제들이 숙식하였다고 한다.



▲ 누나야 등줄 빌려줘, 적어야겠어

그 옆을 보니 활터가 있었는데 그 산은 무예활동을 하던 곳으로 추정되었다.

명륜당 뒤로 돌아가니 대성전이 나왔다. 대성전은 교실이 아닌 위패를 모셔 두는 곳이었다. 그 위패는 공자님, 공자의 제자와 우리나라 성인들의 위패를 모셔놓았다.

'나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성인이 되서 내 위패를 농유스 익유테라'라고 기쁘(?) 생각을 했다. 하지만 공금증이 있었다.

아무리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있으면 돈이 나가기 마련인데 그것을 국가가 다 대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운영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거기에 다니는 학생중에 양반인 학생의 아버지가 조금씩 내는 돈과 지역 유지들이 장학금을 주어 운영했다고 했다.그리고 향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한다.

나는 지금에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알지런 짜증을 많이 낸다.

옛날에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는데 맨날 공부 하기 싫다고 하는 내가 부끄러웠다. 한자공부와 학교공부 모든 열심히 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한자 1급(은근히 지랄ㅋ) 열심히 해서 2005년 5월 역사의 날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

희망을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월렌 켈러>



아산시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인내 · 열림



2004년산 벼 보급종 신청

□ 품종별 예시량 단위 kg					
계	새상주	수라	주남	동진1	남평
	1,860	3,720	36,480	7,820	14,600
15,120	새추청	일품	일미	추청	
	60,960	8,240	12,640	5,800	

□ 신청요령

- 기간 : 2005년 1월 10일까지
- 방법 : 신청서식 활용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 공급은 먼저 신청한 농가를 우선으로 함
- 공급가격 : 추후 확정통보
- 공급시기 : 2005. 2. 1 ~ 3. 30

□ 보급종의 특성

품종명	수량 kg/10a	벼기 cm	도열병	특 성
새상주	5/6	79	중	과미시 비철저하
수라	552	75	중	목도열병에 약함
주남	576	73	약	단단, 다수성
동진1호	564	81	중	다수성, 저온발아성 낮음
남평	547	80	중	밥맛 및 외형 최고수준
새추청	559	95	중	밥맛 및 외형 최고수준
일품	534	79	약	미질우수
일미	522	79	중	소립중, 쌀의 외관우수
추청	453	100	약	질소과비시 두복

아산시 "살기 좋은 아파트"선정

아산시에서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를 개선하고 정감 있고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선정

- 총 선정 아파트단지 : 17개소
- 2004 선정단지 : 일성아파트, 동아차아파트, 삼정아파트
- 심사 : 민간인 중심 8인의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선정
- 혜택 : 동판제작 부착, 시상금 수여

아산 YMCA 찾아가는 가족생태기행 & 어린이 기행학교

□ 찾아가는 가족생태기행

- 일정 : 1월 8일(토) ~ 1월 9일(일) 1박 2일
- 내용 : 태백산맥의 줄기를 찾아서(별곡, 낙안읍성, 선암사)
- 강사 : 박형석(순천여중 역사교사)
- 수강료 : 어른 6만원, 어린이 5만원
- 모집인원 : 40명
- 참가신청 : 12월 31일 까지 선착순 접수

□ 찾아가는 어린이기행학교

- 일정 : 1월 19일(수) ~ 정크아트 전문예술관 1월 26일(수) ~ 2005년 어린이난타 2월 2일(수) ~ 로봇박물관
- 수강료 : 전체 회원 - 10만원, 비회원 - 11만원
- 모집인원 : 초등학생 40명
- 출발안내 : 대회 오전 9시, 온양온천역 앞 출발 오후 6시 도착

*유일정반 방학일정에 따라 조절 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아산YMCA사무국)

- 전화 : (041)546-9877
- 전송 : (041)548-9877
- E-mail : asanyymca@korea.com

저소득층 이·미용업소 이용 요금 할인

-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 전개로 생활안정 도모
- 최저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
- 노인의 편의와 살맛나는 삶의 질 향상 추구
- 사업개요
- 저소득 노이 이·미용 요금 각면으로 생활안정 기반조성
- 소의 받는 기초 생활 수급자 최저생활유지 발판 마련
- 수혜자 : 관내65세 이상의 노인중 의료급여증 소지자
- 추진계획
- 이·미용업소 방문이용시 20%요금 감면
- 대상업소 : 관내 전 이·미용업소
- 적용시기 : 2005. 1월 ~ 12월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모집

- 모집학과 및 인원
- 컴퓨터응용기계과 : 60명
- 시스템제어과 : 60명
- 메카트로닉스과 : 60명
- 정보기술과 : 30명
- 교육기간
- 2005년 3월 ~ 2007년 2월(2년간)
- 모집대상
- 고등학교이상 졸업(예정)자로서 만29세 미만의 남·녀
- 전형방법
- 면접 및 서류전형
- 원서접수 기간 (정시모집)
- 2005년 2월 25일(인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입학생 특전
- 교육비 전액 정부지원
- 기숙사 및 식사 무료제공
- 전문학사 학위 / 산업기사 취득(전문대학교와 동등)
- (학점인정 수수료 개인부담)
- 수료후 전원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매월 수당 지급(5만원 ~ 25만원)
- 교육훈련기간중 입영일 연기
- 예비군 편성자는 예비군 훈련 일부 보류
- 수료 후 성적우수자 해외연수기회부여
- 기타문의
- 전화 : (041) 850-0660-3, 850-0600
- 홈페이지 : www.kocion.or.kr
- 주소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33번지(314-814)

자동차세 납부

-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또는 건설기계소유자
- 자동차세 납부기간
- 2004. 12. 16 ~ 12. 31(16일간)
- 자동차세 부과세
- 도난 자동차는 도난신고 확인서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 관 인도된 차

2005년도 겨울독서교실 운영

1. 도서 관 명 : 아산시립도서관(송곡·배방·둔포)
☎ 송곡 : 540-2661 배방 : 540-2547
둔포 : 540-2566
2. 운영 기간 : 2005년 1월 4일(화)~8일(토)
3. 대상 및 인원 : 초중학생 : 4, 5, 6학년 150명
4. 운영 내용(프로그램) :
○ NIE, 글쓰기 독서지도, 도서관 이용법, 독서 위생
○ 창작 발표회, 나의 작품전시, 특별활동 등
-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바른 독서태도를 길러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을 갖게하며,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학습 경험으로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유도
5. 등록 기간 : 1차: 2004. 12. 21(화)~12. 24(금)
2차<추가>: 2004. 12. 28(화)~12. 31(금)
6. 등록(추천) 방법 :
○ 개별 · 학교장추천 병행
7.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시상 : 아산시립도서관장상 시상, 수료증 수여

신간안내

□ 일반 도서

전사와 학파 1,2	앤드루 램	베일스만
파이어 이야기	안 마텔	작가정신
구백씨의 행복여행	프랑수아 클로르	오래된 미래
거기, 당산?	윤성희	문학동네
한국의인 소나무	정동주	명상출판사
할복 퇴환하는 사범이 성공한다	로다스텍	원형마우스트
미국의 연전, 전쟁과 시장	김동준	창비
속천무후	산사	현대문학
150년 유지칼의 역사	앤드루 램	콜빛
물속을 걸어가는 달	김진태	학교재
아름다운 밤아름	셋 레이오	사이언스북스
사라진 손바닥	나희덕	문학과 지성사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김태환	소마루
가장 인간적인 것들의 역사	폴리우스트	지식경역사

□ 어린이 도서

- 눈오는날 - 에즈라 랭 키츠 / 비룡소(4세이상)
- 처음으로 흑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충격을 주었던 그림책이다. 눈오는날의 설레임과 즐거움이 가득한 책이다.
- 장갑 - 우크라이나 민화 / 다산기획(4-6세)
- 합이버지가 숲 속에서 떨어뜨리고 간 장갑. 그 장갑이 여러 동물들의 집터가 된다. 개구리부터 큰 늑대까지 어떻게 그 장갑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 마법의 설탕 두 조각 - 미하엘 엔데 / 소년한길(초2이상)
- 내 많은 인물을 때마다 얼마 아껴의 키가 반으로 줄었다고요? 하고 싶은 일마다 '인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행맨은 아이의 도움으로 설탕 두 조각은 얻는다. 이런 머뭇머뭇 얼마 아껴의 키가 반으로 줄다는데...
- 나쁜 어린이표 - 황선미 / 사계절(초3이상)
- 나쁜 어린이표가 있다면 나쁜 선생님표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주인공 건우는 억울하게 나쁜 어린이표를 받을 때마다 속이 상한다.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주는 스티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 유전과 유전 - 이금미 / 푸른책들(초6이상)
- 어려서 유전원 원장에게 성폭력을 당한, 이름이 같은 두 주인공 유전과 유전의 그후 이야기이다. 성폭력후 큰 유전과 작은 유전의 부모님이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 중학생이 되어 다시 만난 유전과 유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 아산맑은쌀 전국쌀품질회 대상 수상



▲ 스마트도시, 과학문화도시 선포



▲ 아산시 인구 20만시대 활짝 열리



경찰종합학교 기공



외압 건축관 개관



충남 도민제전 2위 달성



▲ 전국의 아름다운 숲 봉곡사 선정



▲ 아산의 명소 세계 꽃식물원 개원



▲ 국가지정 성용이순신축제 성료

환호! 2004 아듀 2004!

올

한해 환호의 탄성이 울려 퍼진 아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돌아본다. 저물어가는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희망의 열매를 맺어 시민들 발걸음이 바빠지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줄 새해가 떠오를 즈음 2005년 아름다운 스마트 도시 아산건설의 밑그림을 확인해 보자.

▲ 시의 위상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아산시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인구 20만 돌파 ▲ 아산의 농업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줄 아산 맑은쌀 전국쌀품질회 대상과 소비자가 선택한 러브미상 영인농협 수상

▲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키면서 전통문화 보존으로 아산의 문화수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외압건축관 건립 ▲ 시민들의 체력 향상과 체육인들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20만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도민제전 2위 달성

▲ 아산이 추구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굳게 다진 스마트도시 선포와 과학문화도시 선포 ▲ 아산의 전국에 알리면서 관광객 유치에도 비증있는 역할을 담

담할 세계 꽃식물원 개원

▲ 광종과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간 국가지정 성용 이순신 축제 성료 ▲ 전국의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어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봉곡사 오솔길

▲ 연간 1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찰종합학교 기공 ▲ 이밖에도 아름답고 푸른 도시를 추구해 나가는 아산이 국토공원화 사업에서 충남도의 우수상을 수상했고

▲ 시민들의 정보화 교육과 송악스머프 마을, 영인네이랑마을, 아산배 생산지의 문화가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면서 시군정 보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하천제방의 효율적인 관리로 충남도가 선정한 하천제방정비 우수기관도 됐다.

무엇보다도 반겨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대학입학을 위한 수학능력 평가를 아산지역에서 실시해 그동안 타지역으로 이동해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던 불편과 심리적 부담감을 알뜰히 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고교입시에서도 관내학교로의 진학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어(관련기사 1면) 그동안 교육인프라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